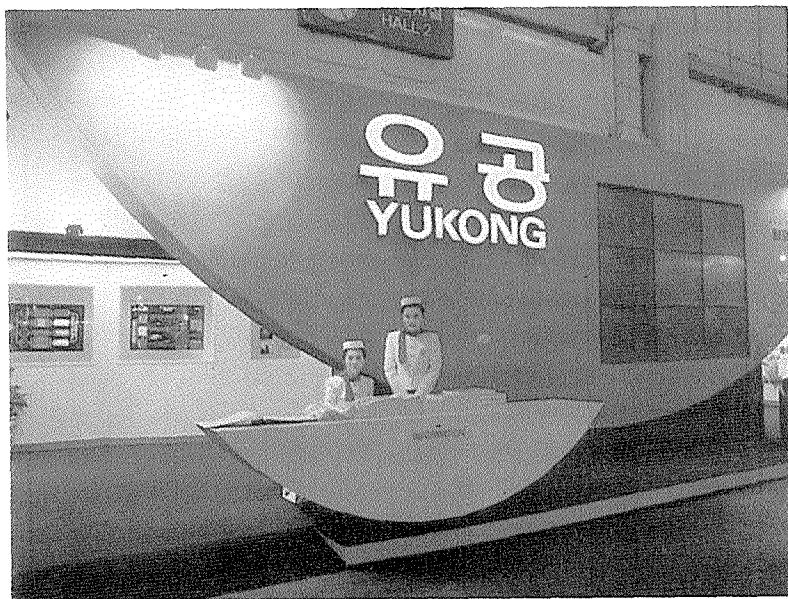


세계일류기업을 향한 끊이어는 혁신과 끊임없는 한해 성장의 한해

'93 환경산업전 유공 전시관



실로 32년만에 들어서게 되는
문민정부의 출범 예상으
로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한 '93년

도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올해는 '90년대에 들
어서면서 시작된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
의 주변환경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숨가쁘게 돌아갔다.

국내적으로는 문민정부 출범에 따
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불
어온 개혁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잘
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 변화
에 따르는 유·무형의 불안감이 뒤엉
킨 한해가 된 듯하다. 특히, 경제측
면에서는 전반적인 규제완화 실시와
국제 경쟁력 강화로 요약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실행으로 기업은 경쟁
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업체
질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
나 한편으론 과거 정부규제의 반대급
부로 받아온 보호막이 없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
한 내부거래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에 대한 실태조사와 조치,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 등 금년에 문민정부가 실시한 일련의 공정거래 활동의 강화는 그동안 다소간은 정부의 성장 우선 정책 기조하에서 안주해 온 우리 기업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함께 기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또 하나의 경제원칙에 적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하였다. 한편, 세계적으로도 러시아, 유고 등 舊사회주의 국가의 정치·경제적 불안이 심화된 반면에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자원을 주로 의존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오랜 반복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주어왔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간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동 지역의 평화정착에 커다란 기반이 되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적인 일이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새로운 환경변화 속에서 '93년은 어느해 보다도 우리나라 전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사실이며, 정부의 개혁정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측면에서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89년이래 침체된 경기가 호전되지 않고, 기술수준의 낙후 등 총체적인 국제경쟁력 열위라는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한편, 올해 국내 석유업계는 국제 석유시장의 안정 및 세계 최고수준을 보였던 국내 석유류 수요증가 추세의 안정화(내수기준으로 전년대비 8~9%)로 인해 석유수급에 대한 불안 없이 한 해를 보낸 것 같다. 특히, 정유

업계의 경우 향후 석유류 수요증가 및 경질화·저유황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고도화 설비 및 물류시설 확충 등 석유류 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본격화된 석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업체질 개선 등 변혁을 추구한 내실있는 한해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주유소 허가제도 완화 과정에서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정유사간의 과당경쟁 현상은 향후 계속될 석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 조치에 대한 석유업계의 대응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올해 우리 회사는 국내 여타기업과 마찬가지로 침체된 경제전반의 영향 및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급격한 변화로 인해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8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2000년대 세계 일류의 종합에너지·종합화학기업 진입」이라는 Supex 추구운동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어나간 내실있는 한 해가 되었으며, 작으나마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우선, 당사는 국내 석유류 수급안정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써 금년에도 지속적인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시설의 안정적인 조업달성을 이룩함으로써 국내 정유업계에서의 *Leading Company*의 위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당사는 작년말에 제1중질유 분해·탈황시설을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곧이어 국내 정유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2중질유 분해·탈황시설 및 제4, 5중간유분 탈황시설에 대한 정부허가를 득하여 현재 적극적으로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등 많은 투자 RISK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저유황 연료유의 안정공급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추진되는 투자사업이라는 점에서 자랑스럽다.

또한, 당사는 현재 가동기준으로 58만5천B/D로 국내 최대의 상압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석유류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기존시설의 *Revamp* 및 신규시설의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상압정제능력은 '96년에 82만3천B/D가 됨으로써 2000년대에도 국내 제일, 나아가 국제 일류수준의 석유회사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유, 석유화학 등 대단위 콤플렉스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는 금년에도 큰 재해사고없이 안전조업 및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제1중질유 분해·탈황시설의 성공적인 안전가동은 그 시설의 운전 특성상 고도의 기술능력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더욱기, 국내 최초로 가동된 당사의 중질유 탈황시설은 그 운전조건이 상당히 가혹한 것으로써 이의 원만한 가동은 당사에게 있어서 자부심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과였다.

둘째로, 환경관리방침의 제정 등 제반 경영활동에 있어서 환경관리업무가 강화되었으며, 환경보호산업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당사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것이 기업의 안정과 성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금년부터 환경 관리방침을 제정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제반 경영활동을 한 층 강화하였다. 즉, 환경보전 및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3R 운동(발생량 절감 - 재사용 - 재순환)을 적극 추진 하였으며, 근본적으로 배출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탈황시설 설치 등의 시설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당사는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 의 의지 및 노력을 보이는 많은 외부행사를 주관 또는 참가하였는데, 울산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국민학생 등 인근주민에 대한 당사의 울산 Complex 견학, 제29회 중앙광고대상에서의 환경광고부문 상 및 '93 환경산업전 참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상기 전시회에서는 당사가 개발하여 선보인 신속 B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장치, 경유매연제거장치 등의 첨단환경기기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당사가 수립하여 시행 중인 향후 10년 간의 「안전 및 환경관련 Master Plan」의 일환으로써 추진되는 것이며, 앞으로도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 회사의 노력은 동 계획을 근간으로 계속될 것이다.

한편, 금년에 당사의 연구개발 추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익히 소개될 정도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가 많이 가시화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신속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방법 및 장치의 개

발, 경유차량 매연제거 기술의 개발 성공을 비롯하여 곰팡이제거제 「팡 이제로」의 개발 및 상업화, 무공해 세탁용제 「유크린」의 개발과 판매, 연료 청정제·유동성 향상제의 국내 최초개발, 생분해성 플라스틱 「그린 플」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풍성한 연구개발의 성과가 나타난 것은 그동안 당사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이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다른 분야보다는 기존사업의 경험을 살려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관된 경영방침의 소산으로 이해된다. 더우기 최근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는 당사가 선도적으로 환경 보호에 일조할 수 있는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가슴 뿐듯한 일이기도 하다.

더우기, 지난 10월 27일에는 한국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 내에 조성된 대규모의 "유공 대덕연구소"에 입주식을 가짐으로써 향후 당사는 에너지 및 환경관련 첨단기술의 개발·상업화를 주도하는 세계적 연구소로서의 성장이 기대된다.

세째로, 당사는 그동안 철저한 준비를 거쳐 소비자지향 마케팅 개념이 본격적으로 각 분야에서 추진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증대를 위한 일련의 서비스 개선활동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우선, 국내 정유회사로서는 최초로 '93. 7. 1.부터 BC카드와 발행계약을 체결하여 "유공 BC카드"를 발행하였는데, 이 카드는 기존의 신용 카드 기능에 당사 고유의 서비스 및 ID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유공주유소

및 일반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주유소 경정비 센터, 유공 및 선경그룹의 시설 이용이나 제품구입시 할인혜택 등이 주어지며, 이용실적에 따라 윤활 유교환권, 세차권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는 포인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사가 상기 제휴카드를 발행하게 된 것은 신용사회의 정착추세에 발맞추어 고객과 주유소간 상호신뢰와 친근감을 높이고, 고객정보 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사는 금년부터 유공주유소의 서비스·이미지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비자 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주유소의 서비스 상태를 파악하여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더불어, 주유소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국의 유공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베스트주유소 선발대회를 금년 4월부터 2개월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서비스 순회시범팀을 조직하여 서울·경인지역의 주유소에 대한 서비스 시범 및 효율적인 주유소 운영방안 등을 지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에 우리회사는 소비자 지향적인 마케팅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풍부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끝으로, Supex 추구의 전사적인 확산과 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꼽을 수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당사가 장기목표

인 2000년대 세계 일류수준의 종합 에너지·종합화학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그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경영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써 그 규모도 창사 이후 가장 큰 대대적인 것이었다. 이로 인해 당사는 조직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으며, 조직구조 및 운영체계도 크게 *Slim화*, *Flat화* 하였다. 당사는 이를 위해서 '91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2년여에 걸쳐 업무관습 혁신운동, 업무개선추진 및 직무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금번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하였다. 특히, 동 조직개편은 이와 유사한 경영혁신을 실행한 국내 타기업과는 달리 조직개편 및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외부 컨설팅회사나 전문가들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선경그룹의 SKMS 및 *Supex* 추구법을 활용하여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당사에서는 조직운영의 효율화와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를 도모하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업체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한편, '89년부터 선경그룹차원에서 시작된 *Supex* 추구도 이제는 도입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확산단계에 들어섰으며, 당사의 경우 올해부터는 생산·판매·연구개발 등 경영전반에 걸쳐 구체화되어 실행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개인이나 단위조직이 일을 할 때 그 일

의 *Super Excellent* 수준을 찾아내서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자는 것으로 당사는 조직구성원들의 의식개혁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성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경영 실천운동으로 구체화하여 시행되고 있다. 금번의 조직개편도 인력 및 조직관리의 *Supex* 추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와 같이 '93년도에 우리 회사는 국내·외적인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Supex* 추구를 통해 2000년대 세계 일류기업을 향한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의 한해를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

다가오는 '94년은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금년보다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시행과 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 등으로 인해 희망적인 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최대 교역지역인 북미 및 유럽 지역의 경제불리화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UR*협상의 완전타결 예상에 따른 경제개방화의 물결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경제전반에 대한 변화의 물결은 국내 석유산업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며, 이에 따라 석유산업에 대한 자유화·개방화 추세는 가속될 것이라 생각된다.

즉, 내년에는 금년에 주유소 허가 제도완화라는 유통부문의 합리화에

이어 유가자유화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유가연동제의 실시가 예상되는 등 석유산업의 자유화·개방화에 대비한 각종 제도개선이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정유업계는 기업체질 강화 등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또한 현재 국제 석유시장의 안정 및 국내 수요의 급증추세둔화로 국내 석유류 수급에 대한 불안요인이 단기적으로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국내 석유화학업체의 장기적인 불황 등 국내 경제의 경기침체에 크게 기인했고, 수요구조도 경질화·저유황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국내 정유업계는 고도화 설비 및 물류시설 확충 등 석유류 안정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설비투자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회사도 '94년에는 정유업계의 일원으로서 이런 자유화·개방화에 대비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경영혁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내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동이익을 위해서 협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상압정제시설의 확충, 제2증질유 분해·탈황시설 및 중간유분 탈황시설의 건설추진 등 세계적 수준의 설비를 갖추기 위한 투자를 본격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우리 회사는 생산·판매·연구개발 등 경영전반에 걸친 *Supex* 추구를 통해 세계 일류기업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해 가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나하나쯤 하지말고 내가먼저 에너지절약